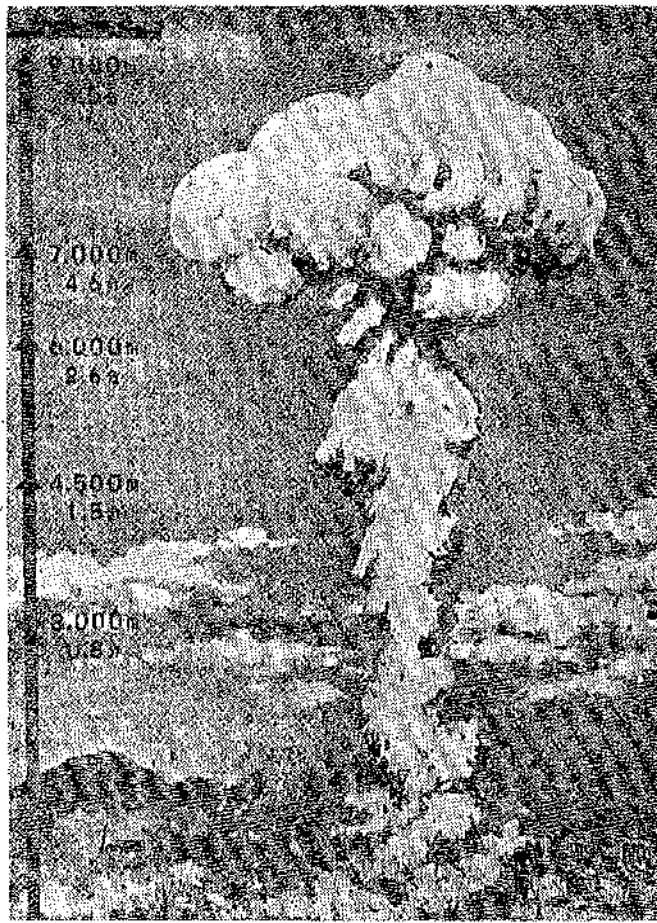


第7回

韓國人原爆犠牲者慰靈祭

日時：1974. 8. 6. (火曜日) 正午

場所：曹溪寺(서울特別市鍾路區堅志洞)



主催 第7回 韓國人原爆犠牲者慰靈祭執行委員會

主管 社團法人 韓國原爆被害者援護協會

後援 保健社會部・反共聯盟
大韓勞動組合總聯盟

案 內 狀

時下 炎暑之節에 尊體萬安하심을 仰祝하옵니다.

就而 오는 8月 6日과 9日은 第2次 世界大戰 末期 日本國 廣島市와 長崎市에 聯合軍이 投下한 原子爆彈으로 30餘萬名의 死亡者와 數10萬의 原爆被害者를 낀 人類史上 最大의 慘酷한 人命被害를 입힌 날이며 아울러 우리 民族이 日帝의 쇠사슬에서 解放을 맞이하게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當時 우리 同胞로서 學兵·徵兵·徵用·挺身隊等으로 強制動員되어 人間以下의 苦役に 酷使當하다가 이 原子爆彈에 犧牲된 爆死者가 無慮 5萬餘名에 達했읍니다.

其後 於焉 29年

日本의 原爆被害者들은 政府에서 特別措置法을 만들어 醫療 및 生計 救護費로 年 150億圓이라는 莫大한 金額을 原爆者 救護事業에 쓰고 있는데 反해 우리 韓國人 被爆者들은 人類社會에서 버림받은채 只今까지 죽어갔으며 남은 사람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實情입니다.

國內外的으로 韓國人 原爆被害者에 對해 이제는 相當한 關心과 國際的인 輿論까지 喚起되어 있다고는 보나 아직껏 怨痛히 가신 魂靈을 모실 慰靈碑도 建立치 못하고 遺族에 對한 對策은 次置하고 後遺症에 呻吟하는 被爆患者에 對해서도 束手無策으로 日本政府나 우리 정부에 빠져린 嘆願과 呼訴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늘진 人間像을 우리 同胞끼리는 여태까지 모른채 처버려두고 지내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陽地를 마련하여 주는것이 同胞愛의 道理인줄 압니다.

따라서 再言합니다 玆은 當時의 5萬餘 犧牲者와 原子病 및 同後遺症等으로 死亡한 數萬의 가엾은 怨靈을 慰勞하고자 有志諸賢의 協贊으로 祭典을 奉行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幽冥을 달리한 靈魂들과 살아남은 被爆者를 慰勞하시와 公私多忙 하시더라도 掃萬旺臨하여 주시기 삼가 바랍니다.

1974년 7월 일

韓國原爆被害者援護協會

서울特別市 中區 仁峴同 2街 73의 1號
豊田商街 3層 가列 358號(☎ 26-4023)

第7回 韓國人原爆犠牲者慰靈祭執行委員會

願	問	郭	尙	勳										
願	問	林	炳	稷										
執行	委員	襄	相	浩										
委	員	洪	淳	鳳	李	杜	鉉	姜	文	熙	宋	泰	善	
		宋	三	變	魯	承	虎	朴	善	奎	孔	守	範	
		趙	判	石	辛	泳	洙							
總	務	徐	錫	佑	鄭	昌	喜	金	有	相				
儀	典	白	光	欽	黃	應	八	金	元	均				
		李	乙	甲	安	柱	憲							

慰 靈 祭 式 順

- | | |
|---------------|----------------------|
| 1. 開 式 | 9. 唱魂 弔 着語 (靈壇) |
| 2. 三 歸 依 禮 | 10. 讀 經 |
| 3. 國 民 儀 禮 | 11. 慰 靈 辭 |
| 4. 開 式 辭 | 12. 慰 靈 歌 |
| 5. 經 過 報 告 | 13. 遺 族 代 表 禮 辭 |
| 6. 大 悲 呪 (上壇) | 14. 焚 香 (念佛) |
| 7. 勸供 祝願 (上壇) | 15. 四 弘 誓 願 |
| 8. 學 佛 (靈壇) | 16. 閉 式 |

원폭 희생자 위령가

느리게 윤길 석대 중현 시곡

1. 일 본 - 땅 히 로 사 마 원 자 폭 탄 에 - 수
 2. 해 방 - 된 조 국 모 습 보 지 폭 못 한 채 - 원

남 은 목 숨 잃 - 어 등 포 - 가 있 다 - 전 쟁 은 끝 났
 북 에 회 생 되 - 어 가 버 - 린 형 제 - 8. 1 5 며 날 칠

오 - 도 평 화 유 와 도 - 해 마 - 다 더 해 가 는 아
 - 단 활 분 부 일 돌 - 마 음 - 에 되 세 기 며 슬

죽 임 을 얻 은 자 - (후렴) 낮 신 땅 외로운 널 원 통한 죽

음 - 영 이 라 도 위 로 하 자 명 복 을 빌 자 -